서울 제일교회 사건 관련 기록들을 열며

현종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무자비한 폭력' 이라든가 '죽음과 같은 고통' 등 극한의 공포 속에서 겪었던 개인의 경험과 행위를 몇 마디의 축약된 언어로 사용하다보면 당사자들이 겪어야 했던 구체적이고 세세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독립운동이나 한국전쟁, 독재시대의 민주화운동 등에서 겪었던 수많은 공포와 고난은 단지 몇 마디의 언어로 표현되어 남겨질 수는 없는 일이다. 더구나 세월이 훨씬 지난 뒤 많은 사람들에게 망각되어진 사건의 경우, 개념화된 언어로만 대체되어진다면 당사자들이 겪었던 경험은 한낱 '지나간 개인의 옛일' 로만 여겨지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폭력이나 사회적인 모순구조 속에서 겪어야 했던 '지난 일' 들은 현재사회의 발전이나 미래의 올바른 지향을 위해서도 반드시 역사화 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당시의 상황은 주객관적 관점에서 명확히 규명되어져야 하고 미래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철저하고 구체적인 규명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시 '기록' 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경험자들의 '기억' 을 세밀하게 추적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이들의 경험과 저항의 행위가 역사의 주체로서 자리 매겨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국가적 사회적인 활동이 지속되어야 하는 게 중요하다.

80년대 초의 상황, 개인적 소회

어느 날인가 교정에서 누군가에게 짓밟히고 있는 친구를 보았다. 얼굴이 무참히 일그러질 정도로 발길질을 당하고 있었다. 친구는 이리저리 피하고 벗어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용없는 듯 보였다. 그야말로 속수무책인 상태였다. 폭력을 행사한 이들은 교내에 상주해 있었던 형사들이었고, 이유는 친구를 포함한 몇 명이 교내에서 반정부 모임을 가졌다는 것이 전부였다. 그때가 80년대 초중반이다. '제일교회 사건' 을 처음 접한 때가 이런 현실로 인해 나름대로 사회문제에 대해 고민

하던 시기였던 것 같다. 다만 당시의 기억으로는 '제일교회' 목사와 신도들이 전두환정권의 폭력에 의해 교회에서 쫓겨나 거리에서 예배를 진행한다는 정도였다.

20여 년이 흐른 지금에 제일교회와 관련된 기록을 접하게 되었다. 제일교회의 구창완 목사께서 사료관에 제일교회와 관련된 사료 1박스 분량을 기증하신 것이다. 거의 잊혀진 일이었지만 사건의 진상과 '대책위원회'(대책위)의 활동 등을 두루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다. 더구나 2003년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보안사 직원이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온 상태였다. 당시 대책위가 배후로 지명한 보안사 개입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당시 언론과 2003년의 증언의 내용을 간추려 본다.

서울제일교회 사건에 대해 △84년 6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학봉 (현 민정당 국회의원) 씨가 정보기관의 개입사실을 시인했고 △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박주병씨가 裵元龍목사에게 보안사의 제일교회 공작

보안사 직원이 개입했다는 증언 나와

사건이 발생할 당시 언론은 이 사건에 대해 제일교회의 신도들 간의 내분으로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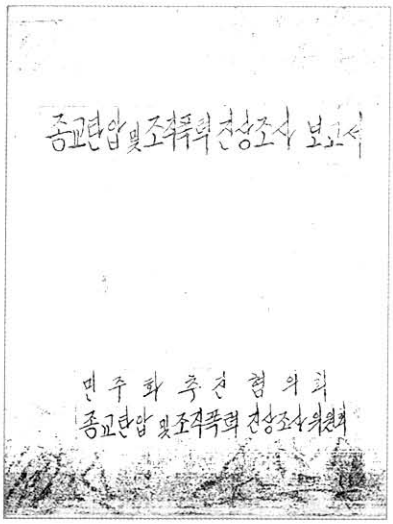
"제일교회 신도 및 가족 40여 명은 84년 9월 9일 오후 1시 30분경부터 10일 정오경까지 교회 2층 예배당을 점거하고 당회장인 박형규 목사 사퇴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모 장로(62세)가 중심이 된 농성신도들은 '박 목사가 근로자와 학생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 교회를 불온화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출입구를 폐쇄하고 건물 벽에 박 목사를 비난하는 벽보 등을 붙여 놓았다"(한국일보, 1984년 9월 11일)

당시 언론은 사태의 원인 및 배경에 대해 단순한 '신도들의 주도권 싸움', '박 목사 취임 이후 교세 약화', '박 목사의 사표제출 번복' 등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박 목사 지인들과 신도들은 반대파 신도들이 '이 교회의 참 신도가 아닌 사람들'이고 그 배후에는 보안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였다.

20여 년이 지난 2003년 '보안사 수사관 주도' 증언으로 이는 사실로 입증되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 탄압사건의 하나로, 보안사령부의 개입 의혹을 사왔던 '서울 제일교회 폭력사건'과 관련해 당시 보안사 관계자가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보안사 전직 근무자의 증언이 나왔다. …… 재일동포 2세 김 모(48세) 씨는 …… '보안사 수사과에서 일하던 1984년 말 수사 5계 S수사관이 서울 제일교회 폭력 사건을 주도했다는 얘기를 당시 다른 보안사 사람들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 김 씨는 'S수사관이 제일교회 사건 직후 조직 안에서 '저 xx가 사고 쳤다.'는 욕을 먹으면서 당시 대공처장실을 들락날락하면서 해명하는 것을 봤다며 ……"(한겨레신문, 2003년 11월 27일)

20년 전 거리예배를 보던 신도와 대책위에서 주장했던 사건의 주범이 보안사였다는 사실이 한 사람의 구체



적인 증언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는 사건의 본질에 대한 접근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기증된 사료들에 의하면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은 더 구체적으로 파악될 것이다. 물론 보안사 등에서 작성한 기록들에 대한 면밀한 접근, 당시 계획 집행자의 직접적인 증언 등을 통해 그 실체를 파악해 나가는 과정이 더욱 필요하다.

기증된 사료의 내용을 보면서

구창완 목사가 기증한 사료는 1박스 분량으로 당시 사건 발생 이후 교회에서 쫓겨난 신도들의 활동과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기엔 적당했다. 내외신 보도자료, 재판 관련 기록, 자료집, 사진첩, 비디오테이프, 성명서 등의 유인물, 조사 보고서 등이 주 내용들이다. 사료입수 당시는 12개의 철과 1개의 비디오테이프로 정리된 상태였고, 기증자가 주요 목록을 별도로 작성하였다. 이를 다시 사료 담당자가 5개의 파일박스, 7개의 철로 정리하였다.

중요 목록을 보면 첫째, 대자보 및 유인물류로 〈보안사 요원과 폭력배들에 의한 서울 제일교회 불법강제점거 사건 경위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면서-서울 제일교회 성직자 등 감금, 폭행사건에 항의하여-〉, 〈감금상태 일지-죽음의 공포와 배고픔, 추위 속에서〉, 〈전국목회자 민주쟁취 선언〉 등이다.

둘째, 자료집 및 보고서류이다. 예배방해 및 조직폭력배 관련 내 · 외신 자료 및 격려 지지 편지, 박형규 목사 이력서(재판 관련) 예배 방해자 관련 편지와 사진 및 호소문 등이다. 〈서울 제일교회 백서〉, 〈Who have tried to destroy the CHEIL CHURCH〉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셋째, 법률 관련 자료들로 고소 및 재판 관련(폭력, 건물명도 관련) 진정서와 청원서 등(국회, 경찰서, 종교단체)이다.

넷째, 사진첩이다. 교회 예배를 방해하는 사진과 치안본부 및 중부경찰서 앞에서 노상예배를 드리는 사진들로 1992년까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진을 한글, 영어 등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마지막으로 주일예배를 방해하는 비디오테이프 등이다.

목록에서 보면 사건 이후 진상규명 활동을 위해 거리예배, 농성, 법원 청원, 대내외 활동 등을 수년간 끊임없이 진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03년의 한 증언으로 인해 이 사건을 주도한 실체가 보안사였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상의 기록과 기억들을 통해 '제일교회 사건' 진상규명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더 많은 근거들의 보완과 축적을 통해 묻혀져가는 무수히 많은 사건에 대한 진상들이 역사적으로 규명되어야 한다. 관련 근거의 부족으로 입증되지 못 하는 사건들에 대한 '기록'의 발굴과 관련자들의 '기억'에 대한 끊임없는 추적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료를 기증해주신 구창완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